

인권 자료실		
중요도	분류기호	사호
	B74	33

양심선언군인전경기념사업회(준비모임) 발족식

일시 : 1998년 7월 9일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1. 경과 보고
1. 조직의 목적
1. 사업내용
1. 발족선언문
1. 자료 - 양심선언 군인전경 현황

양/심/선/언/군/인/전/경/기/념/사/업/회/준/비/모/임

(대표: 이 예교, 011-758- 0687. 총무: 연 성흠, 019-~~312~~12-6027)

1. 양심선언 군인 전경 활동 경과보고

- 1987년 7월 8일 고 양승균전경 Kncc 인권위에서 양심선언
- 1988년 5월 10일 [전투경찰해체투쟁위원회] 결성
- 1989년 2월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 결성
- 1989년 6월, 8월 양승균, 정광민등 전해투, 민군투 회원 일부 구속
- 1990년 10월 4일 윤석양이병 보안사 대국민 사찰 폭로
- 1990년 11월 1일 [윤석양후원사업회](준비위) 발족
- 1992년 10월 19일 [나라사랑양심선언자모임] 결성(현재 활동중)
- 1993년 5월 25일 임성호등 양심선언 군인, 전경 수배자 8명 기독교 인권위에서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군의 민주개혁을 촉구하며 58일간 농성, 청와대로 진격하다 모두 구속됨
- 1993년 7월 30일 [양심선언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 결성
- 1996년 1월 24일 [민군관계연구모임] 결성
- 1998년 7월 9일 [양심선언군인전경기념사업회](준비모임) 발족

1. 조직의 목적

[양심선언 군인 전경 기념사업회]는 양심선언 군인 전경들의 명예회복 및 병사들의 권리와 복지향상, 그리고 군민주화 평화군축 등의 사업을 통해 이 땅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사업내용

1) 고 양승균, 김영환 동지 추모사업

- 87년 7월 8일, 양심선언후 [전투경찰해체투쟁위원회] 위원장, [윤석양 후원사업회] 사무국장,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총무 등을 역임하며 군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왔던 고 양심선언 애국전경 양승균 동지에 대한 추모사업을 전개한다.

- 93년, 임성호등 양심선언 군인 전경 수배자 8인의 군민주화를 촉구하는 58일 간의 농성에 적극 결합, 이후 [양심선언 군인 전경 지원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 돌아가신 고 김영환 동지에 대한 추모사업을 전개한다.

2) 양심선언 군인 전경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나가고 그동안 양심선언으로 인해 받았던 사회적 불이익을 개선, 양심선언자들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양심선언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 양심선언자들의 사면, 복권, 복직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 양심선언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그동안 군민주화를 위해 힘써왔던 동지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을 전개 한다.

3) 병사들의 권리와 복지향상 및 군민주화, 평화군축 실현을 위한 사업

- 양심선언자 보호법(내부비리고발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사업을 제 사회 민주단체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한다.

- 양심선언, 또는 군민주화를 위한 투쟁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군인 전경들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병사들의 일상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 병무비리 척결등 군대내 비리척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 군사법제도 개선과 전투경찰의 해체를 위한 제반 사업을 전개한다.

- 군민주화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전개한다.

- 평화군축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전개한다.

양심선언 군인 전경 기념사업회(준비모임)

발족 선언문

지난 1987년 7월 8일, 6월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시위진압을 거부하며 전투경찰의 해체와 군대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고 양승균 전경의 양심선언이 한국 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후 전투경찰의 해체와 군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군인, 전경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졌고 지금까지 모두 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의한 시대의 군사정권의 폭압에 맞선 양심선언 군인 전경들의 투쟁은 그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시대의 어둠을 뚫고 일어난 한줄기 거대한 물줄기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양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역사의 부름에 당당히 나섰던 군인 전경들의 양심선언은 군대내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의 진상을 사회에 폭로하고, 독재정권의 방패막이를 거부함으로써 군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양심선언 애국전경, 고 양승균 동지의 양심선언 11주기를 맞이하며, 그 양심선언의 뜻을 기리고, 양심선언자들의 명예회복과 군민주화, 평화군축 등의 사업을 통해 이땅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양심선언 군인 전경 기념사업회] 준비모임을 발족 합니다.

군 민주화의 실현은 국민정부의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시대는 군의 민주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군사통치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오욕으로 얼룩진, 찌뚫어진 군대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일은 현 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정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입니다.

이제, 현 정부가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의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한다면 먼저 군의 민주개혁 및 병사들의 권리를 위해 힘써온 양심선언 군인 전경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1998. 7.9

양/심/선/언/군/인/전/경/기/념/사/업/회

이력 자료집		
구분	번호	페이지
	B-4	33

故 양승균 전경 양심선언 11주년 기념 및
양심선언 군인·전경 명예회복을 위한

목 요 기 도 회

양심선언 군인·전경 기념사업회 준비모임 발족식



일시 : 98년 7월 9일 오후 6:3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Tel. 764-0203

주관 : 양/심/선/언/군/인/전/경/기/념/사/업/회/준/비/모/임

1부.

목 요 기 도 회

사회 : 임광빈 목사
(서울인권위 서기)

예배의 부름 ----- 사 회 자

사회 : 여호와여 내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회중 : 주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
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회 :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엮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회중 :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침담하니이다.

사회 :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회중 :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사회 : 여호와여 주의 이쁨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다같이 :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시편 143편 1-7, 11-12)

개회찬송 ----- 265 ----- 다 같이

1.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길 따라서 살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2.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네 창점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3.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 후렴 : 어둔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대표기도 ----- 박용길 장로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고문)

성경봉독 ----- 사 회 자

말씀선포 ----- 박형규 목사
(기장총회 증경총회장)

찬 송 ----- 261장 ----- 다 같이

1. 어둔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질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속에 새롭다.
이 빛 삶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2.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3. 맑음샘줄기 용솟아 거치른 땅을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 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에 햇불되어 타거라

인 사 말 ----- 양희석 선생
(故 양승균 전경 부친)

축 도 ----- 이명남 목사
(KNCC 정의와 인권위원장)

2부

양심선언 군인·전경 기념사업회 준비모임 발족식

민중의례 . 개회사 . 내빈소개 . 격려사 . 경과보고
발족선언문 낭독 . 폐회 . 공동식사

나의 눈물은 민주와 인간적 삶의 반대편이 되어야 했던 집회의 눈물이며 군인이고 전
경이며 한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시작의 눈물이다. ...

故 양승균 동지의 최후진술 중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1974년 창립된 이래로 인
권유린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목요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요기도회'는 고난받는 이웃들이 함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의 : 전화 764-0203, 744-3717, 팩스 744-6189